

# 1930-70년대 스웨덴의 사회개혁 정책과 현대 디자인의 형성

A Study on the Social Reformation Policy of the Swedish Government during 1930-1970 Period  
and its Influence on Swedish Modern Design

강 현 주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론

2. 스웨덴 근대화의 성격

- 2-1. 스웨덴의 산업화
- 2-2.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발전과정
- 2-3. 스웨덴 모델과 복지 국가의 개념

3.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사회개혁 정책

- 3-1. 생활조건의 변화
- 3-2. 스웨덴의 사회운동과 디자인을 통한 생활문화 개선운동

4. 스웨덴 현대 디자인의 형성 과정

- 4-1. 근대 디자인 운동의 시작(1930년대 이전)
- 4-2. 현대 디자인의 전개(1930년대-1970년대)
  - 4-2-1. 기능주의 디자인과 스웨디쉬 모던(1930년대)
  - 4-2-2. 일상생활의 문화적 환경 연구(1940년대)
  - 4-2-3. 민주주의적 이상의 실현(1950년대)
  - 4-2-4. 소비사회에 대한 반성(1960년대)
  - 4-2-5.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1970년대)
- 4-3. 스웨덴 현대 디자인의 과제(1980년대 이후)

5. 결론

참고 문헌

논문 요약

스웨덴의 현대 디자인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지사회 모델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발전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사상적 기반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표면에 드러난 형태만으로 스웨덴 디자인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상적 서술에 그치기 쉽고, 그들이 왜 세계 디자인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40여 년간은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던 스웨덴이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의 사회개혁 정책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하고 문화적으로도 그 역량을 전세계에 떨쳤던 시기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전과정이 스웨덴 현대 디자인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공예 전통을 효율적으로 대량생산 체제에 부합시킴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던 당시의 스웨덴 지식인들과 디자인계의 동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근대화 과정에서 스웨덴 디자인이 지향했던 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비교적 모범적으로 근대화에 성공하고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을 만들어낸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Abstract

The social-democratic ideas which define the modern national Swedish idea have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Swedish modern design during this century. Swedish designers found humanistic and democratic values in the traditional design style and they tried to create a modern style that was based on handcraft traditions as well as modern industrial aesthetics. Issues raised by Swedish designers of that time included how Sweden was achieving a national identity through design and how design reflected changes withi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cial reformation policy of the Swedish government during the 1930-1970 period and its influence on Swedish modern design. This paper, it is hoped,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place contemporary Swedish design in a social and aesthetic context.

Keywords

Swedish Modern Design, Social Reformation Policy

## 1. 서론

현재 국내에서는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차원에서나 기업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디자인의 형식적, 공리적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현재 한국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기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디자인을 제품에 약간의 부가가치만을 높이는 장식적인 것으로 여기는 일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수준의 논의로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한국 현대 디자인'의 형성이라는 과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일정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의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바는 단순히 부가가치적인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복지나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충분한 대담으로서 제시되는 디자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의 현대 디자인'이 될 것이고 이러한 단계에서만 현재 국가적 목표가 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디자인이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비교적 모범적으로 근대화를 완성한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적 주체성을 견지함과 동시에 복지 국가의 틀을 만들어냈던 스웨덴에서 디자인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는 전체 문화계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진보적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스웨덴 지식인들의 노력과 사회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한 스웨덴 정부의 사회정책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였던 스웨덴 사회가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사회개혁정책을 통해 근대적인 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발전과정이 스웨덴 현대 디자인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시기는 당시 집권당이었던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부가 스웨덴 모델의 이념적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시기이자 스웨덴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각광받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스웨덴 현대 디자인이 형성되는 과정을 스웨덴이 근대화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

하는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줌과 동시에 현재 우리사회에서 디자인이 담당해야 할 바를 재검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2. 스웨덴 근대화의 성격

근대화 이전에 유럽의 변두리 지역으로 오랜 기간 낙후되어 있었던 스웨덴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대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독자적인 모델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1930년에 개최되었던 스톡홀름 세계박람회는 스웨덴의 이러한 변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박람회를 통해 스웨덴은 '유럽 대륙의 근대 문명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문화를 수출하는 위치로 자리바꿈'<sup>1)</sup>하게 되었다.

이 박람회에서 선보인 스웨덴적인 특성은 사회민주주의 사상과 기능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가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사회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정통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실용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이러한 스웨덴의 정치이념은 자연스럽게 기능주의와 접목되었다. 그리고 이때의 기능주의란 '하나의 확실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다원적인 정치·경제·사회 기능들이 분화되어 이 기능들에 의해 사회관과 국가관과 세계관이 형성되고, 계획된 행동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의미'<sup>2)</sup>였다.

일반적으로 — 특히, 디자인과 같은 조형예술 분야에서 — 기능주의라는 용어가 양식적인 특성을 일컫는 말로 의미가 한정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넓은 의미에서 기능주의란 세계를 보는 시각, 즉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 스톡홀름 박람회에 참여했던 스웨덴의 디자이너들이나 건축가들이 조형적인 측면에서 독일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외형적인 스타일과 유행으로서의 기능주의가 아니라 사회의 개혁과 인류의 진보를 믿는 철학으로서의 기능주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스웨덴의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스웨덴의 지식인들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독립된 근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들은 활발한 사회운동을 통해 이러한 목적들을 성취해 나갔으며 스웨덴의 지식인들은 디자인을 비롯한 여러 예술, 문화 분야의 발전이 이러한 국가적인 독립성을

1) 주성수: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인간사랑, 393. (1992)

2) 주성수: 위의 책, 393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다.

## 2-1. 스웨덴의 산업화

스웨덴은 유럽의 변두리 지역으로 오랜 기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산업화 역시 유럽의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늦은 1870년대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했던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었고 수출산업의 주도로 산업화가 추진되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스웨덴은 1870년대 이전에 이미 초기 형태의 산업생산이 발전하여 산업화를 가속화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수공업이 발달하였고 장인들은 길드를 조직하였으며, 대도시에서는 18세기 이전에 매뉴팩처식 생산방식이 출현하였다.<sup>3)</sup> 19세기 중반 이후 스웨덴은 목재나 철강, 철강산업 등의 수출과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였다. 1,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중립국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군과 연합군을 상대로 철강,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수출하여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하지 않았던 스웨덴은 19세기 중반에 시민계급에 의한 자유사상의 승리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였고 20세기 초부터는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산업화, 근대화를 위한 국가이념으로 채택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모범을 보였다. 1932년에 집권하여 1976년까지 44년간 장기집권하면서 사회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왔던 사회민주당의 정치목표는 '최저 생활의 보장이 아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이러한 이상은 일련의 사회개혁 정책과 디자인진흥 정책을 통해 스웨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놓았다.

## 2-2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발전 과정

1899년에 창당된 스웨덴 사회민주당(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약칭 SAP)은 그 출발에 있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다소 늦었지만 급속히 성장하여 1932년에 집권당이 되었다. 40여년 동안 계속 집권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선구적인 혼합 경제체제'<sup>4)</sup>를 도입함으로써 복지 국가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스웨덴 사람들은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경제적 차별이 없는 사회구성원 간의 물질적 평등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유럽사를 연구한 임하뉴엘 토드는 이러한 물질적 평등성이 단순히 스웨덴 시민당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스웨덴에서는 '비참한 농민층이 비열하게 치부한 중간계급과 대치하는 모습'<sup>5)</sup>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스웨덴 사회는 물질적 기반이 평등한 신분사회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 평등성은 스웨덴의 하나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당 정부는 이러한 전통을 근대화된 산업사회에 적합하도록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이 절대적이었던 스웨덴에서 1910년경까지 경제 활동 인구의 과반수를 넘었던 농민층은 신분의회에서 귀족이나 성직자들처럼 독자적인 대표권을 가졌었다. 농민층은 1900년대 초반에 독자 정당인 농민당을 결성했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 1932년에 시민당이 집권하는데 기여했다. 1930년대 스웨덴에는 노동자, 농민, 부르조아를 각각 대변하는 정당들이 있었으며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시민당이 전통사회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농민당의 도움을 얻어 집권함으로써 근대적인 스웨덴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스웨덴 시민당이 국왕의 존재나 자본가들의 존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다국적이며 수출지향적인 성격을 지닌 대규모 사기업들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스웨덴 경제가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내었다. 시민당 정부는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간단계에서도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문화적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으며 개혁주의적인 노선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 2-3. 스웨덴 모델과 복지 국가의 개념

스웨덴 모델은 1932년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본격화되어 1960, 70년대에는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사회모델이 되었다. 시장경제의 바탕위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혼합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스웨덴 모델은 지속적인 사회개혁과 복지제도의 확립을 통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스웨덴의 정치형태와 노사간의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는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고 이러한

3) 안재홍: 스웨덴 노동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의 선택,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까치, 352-356 (1997)

4) 김정홍 외: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1994)

5) Todd, Emmanuel, 김경근역: 유럽의 발전 - 인류학적 유럽사, 까치, 308-310 (1997)

6) 안재홍: 앞의 책, 337

경제성장은 자유·평등·연대라는 근대 민주주의의 이념을 내세운 사회민주당 정부에 의해 노동자, 나아가 전체 국민을 위한 공공 부문의 팽창을 통한 광범위한 복지 제도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여러 당과 이익단체들이 가능한 한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스웨덴의 정치구조는 사회적 안정을 가져왔다. 한동안 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고 안정된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던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장기간 집권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통해 이상적인 복지 국가로서의 스웨덴 모델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복지 국가(Welfare State)라는 개념은 민주적 시민 복지가 보장되는 국가라는 의미로 1941년에 최초로 사용되었다. 사회역사학자인 아사 브리그스(Asa Briggs)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첫째, 소유한 재산의 시장가치에 관계없이 최저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둘째, 질병, 노령 및 실업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사회보장의 범위를 넓혀가는 사회, 셋째, 사회적 차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최상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장기능을 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sup>7)</sup>라고 정의했다. 스웨덴은 이상과 같은 복지 국가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복지 국가의 이상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해온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스웨덴 사민당의 집권기간 동안 스웨덴은 경제적인 성장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사회구성원들간의 물질적 평등이라는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왔다.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스웨덴은 고용, 사회보장, 교육기회의 균등, 남녀평등, 주택과 주거환경, 노동시간, 근로환경 등의 면에서 뛰어난 복지제도를 완성하였다.

### 3.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사회개혁정책

#### 3-1. 생활조건 변화

19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스웨덴의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을 가져왔다. 스톡홀름의 경우 1866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 산업화와 인구유입에 따른 시가지 확대를 계획하기도 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농촌지역에서 전통적인 삶을 살아왔던 농민들 중 많은 수가 산업화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산업노동자가 되었다. 그 결과 도시지역에는 주택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고 주

거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으며 노동조건 역시 매우 열악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산업화 초기의 주거환경과 노동환경은 사회발전과 인식의 전환으로 1890년대 들어 다소 개선되는 듯 했으나 1894년부터 1910년사이의 기간에 다시 집세가 급격히 상승하여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스웨덴 사민당이 처음으로 집권한 1930년대는 생활조건과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였다. 당시 사민당은 스웨덴 사회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건으로 국민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즉 국민의 마음과 신체적 건강의 기초는 주택으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양질의 주택에 살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국가 존립의 확고한 기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택정책은 스웨덴 사민당의 주요 사회개혁 정책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어 40여년간의 사민당 집권기간 동안 결실을 맺게 되었다.

#### 3-2 스웨덴의 사회운동과 디자인을 통한 생활문화 개조 운동

스웨덴에서는 산업화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이 등장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유교회운동, 절주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등이 있다. 이들 사회운동들은 구체적인 운동의 목적이나 내용은 달랐지만 스웨덴이 근대적인 모습의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가 변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던 이들 사회운동들은 일반인들에게 사회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사회변화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들 운동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선거법이 바뀐 1908년 이후에 주로 사민당에 가입하여 스웨덴 사회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일상생활의 환경조건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사민당 정부의 복지 국가 구상과 같은 선상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생활문화 개선운동은 1930년에 개최되었던 스톡홀름 세계박람회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전시회에 참여했던 스웨덴의 디자이너, 건축가들은 당시 독일에서 전개되었던 급진적인 기능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반 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작업환경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밝고 합리적이며 건강한 생활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7) 김정홍 외: 앞의 책, 14

시도들은 이전 시대를 품미했던 섬세하고 우아한 복구의 신고전주의 스타일을 기대했던 외국의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에게는 다소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으나 스웨덴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스톡홀름 세계 박람회를 전후하여 1930년대 스웨덴의 건축가, 디자이너, 사회운동가, 민주단체, 일반 소비단체들은 생활조형의 양질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벌였는데 이 운동의 목적은 기계생산에 의해 대량생산되는 일상 생활용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아름답고 편하게 만들자는 것이었고 지식인들의 이러한 사회계몽 활동은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당시의 사회민주당 정부는 디자인을 통한 생활문화 개조운동이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를 사회개혁 정책에도 포함시켰다. 사회민주당이 특히 관심을 보인 분야는 저소득계층 도시근로자의 거주환경 개선 문제였는데 이를 위해 <조리용 부엌칼에서부터 도시계획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축가, 디자이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벌여 나갔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 스웨덴은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고 이상적인 생활문화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 4. 스웨덴 현대 디자인의 형성 과정

스웨덴 현대 디자인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스웨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스웨덴의 현대 디자인은 스웨덴이 하나의 독립된 근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스웨덴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의 사회개혁 정책은 건축, 미술, 공예, 디자인을 비롯한 문화, 예술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유럽의 변두리로서 정치,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유럽 대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모델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의 근대 디자인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4-1. 스웨덴 근대 디자인 운동의 시작 (1930년대 이전)

스웨덴의 미술공예와 디자인이 근대화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 논의에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스웨덴 수공예협회가 창립된 1845년을 그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1897년을 스웨덴의 조형예술 분야가 근대화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1897년을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는 이 해에 카알 라손<sup>8)</sup>이 스웨덴식 인테리어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평가되는 스투브본 집을 그린 수채화를 처음 발표하였고 같은 해에 작가이자 교육가,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던 엘렌 케이<sup>9)</sup>가 「가정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상 생활문화 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회변혁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수공예협회는 자유시장 경제제도의 도입과 길드조직의 쇠퇴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스웨덴의 수공예 활동을 진흥하고자 1845년에 설립되었다. 이 협회를 창립한 닐스 몬손 만델그렌은 예술가이자 민속학자로 그는 스웨덴의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스칸디나비아의 수공예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훌륭한 장인정신을 산업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스웨덴 수공예협회가 주장했던 것은 <수공예를 통한 민족적 주체성 확보><sup>10)</sup>였다.

1897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한 전시회에서 카알 라손은 달라나의 스투브본에 있는 자신의 집 풍경을 담은 수채화 작품들을 선보였다. 라손의 작품을 본 엘렌 케이는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1897년 겨울 「가정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논문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갖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후 엘렌케이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아름다움』(1899)을 출판하였다. 엘렌 케이가 자신의 책 제목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칭한 것은 사실 노동자 계층을 겨냥한 것이었다. 당시 스웨덴의 노동자 계층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에 있어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고 당시 스웨덴 사회에서 사회, 문화운동을 주도했던 지식인들은 노동자 계층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다.

엘렌 케이는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급진적인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엘렌 케이가 단순하고 실용적인 것이 아름다운 것이

8) 카알 라손(Carl Larsson, 1853~1919)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스웨덴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작가이다. 주로 수채화 작업을 했다.

9) 엘렌 케이(Ellen Key, 1849~1926)는 작가이자 교육가였고 여성운동가였다. 1913년에 출판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움 Skönhet för alla』은 가정에서의 아름다움, 일상생활의 아름다움, 축제관습, 황혼의 모닥불 등 네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아름다움과 일상생활의 아름다움 부분은 당시 디자이너들뿐 아니라 문화계 지식인들에게 일상생활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0) Kerstin Wikman red.: *Form genom tiden*, Sveriges Television AB, 48, (1992)

라는 주장을 폈을 때 그녀는 이미 30년 후에 스웨덴 사회에 도래할 기능주의를 예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기능만을 중요시한 것은 아니었다.

엘렌 케이가 카알 라손의 순드본 집에서 감탄했던 것은 순드본 집이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 스웨덴적인 양식과 외국의 선진적인 양식들을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쾌적하고 편안하면서도 개성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이상적인 주거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스웨덴적인 이상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집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양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롭게 등장한 생활양식이란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은 고상한 취미와 품위를 바탕으로 한 고전적인 삶의 방식에서 보다 여유있고 자유로운 현대적인 삶의 방식으로의 이행을 의미했다.

1907년 미술가들과 이론가들, 생산자들간의 협조를 전제로 출발한 독일 베르크분트의 이상은 스웨덴의 미술공예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베르크분트를 스웨덴에 처음 소개한 것은 텍스타일 디자이너인 엘자 스펠손 굴베리였다. 스웨덴 수공예협회에서 일했던 굴베리는 독일을 방문하면서 베르크분트의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귀국 후 그녀는 스웨덴의 미술산업을 새롭게 하고 스웨덴 수공예협회가 미술가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중개기관 역할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굴베리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스웨덴의 여러 미술가들이 산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시기 스웨덴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1917년에 스톡홀름의 릴리에발쉬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주택전시회>를 통해 마련되었다. 스웨덴 수공예협회가 주관한 이 전시회는 미술과 산업을 연결시키려 했던 스웨덴 수공예협회의 성과를 평가해보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 전시회에는 도시 노동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 유리공예 제품, 세라믹 제품, 기타 가정용품들이 선보였다. 이 전시회에서는 가장 단순한 일상용품까지도 조형적인 형태를 갖추었고 품질이 우수했다. 그러나 평론가들의 극찬과 관중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주택전시회>의 결과는 주최층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 왜냐하면 이 전시회가 대상으로 삼았던 노동자 계층은 새로운 일상용품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전시회의 입장료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빌헬름 코게가 노동자들을 위해 디자인한 테이블웨어는 노동자들의 식탁 대신에 지적인 중산층의 식탁 위에 놓이게 되었고 1차 세계대전으로 더욱 악화된 주택난은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개선을 더욱 어렵게 했다. 하

지만 이 전시회의 정신만은 후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19년 그레고르 파울손<sup>11)</sup>은 『보다 아름다운 일상용품들』이라는 책을 통해 이 전시회의 정신을 계승하였고 이 책은 스웨덴 디자인 정신과 이념을 대변하는 일종의 슬로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1917년의 <주택전시회>는 근대적인 스웨덴 디자인 문화 탄생의 밑거름으로 평가되고 있다.

## 4-2 스웨덴 현대 디자인의 전개(1930년대-1970년대)

### 4-2-1. 기능주의 디자인과 스웨디쉬 모던(1930년대)

1927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렸던 디자인 전시회는 모더니즘 디자인과 기능주의 디자인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에서 미스 반 데 로에, 그로피우스, 르 코르뷔지에, 페터 베렌스 등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은 가구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포함한 완벽한 주거단지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건축가들은 조형적으로 완벽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기술혁신과 표준화, 합리화, 대량생산을 토대로 한 새로운 건축을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조형언어의 수준을 넘어서 기존의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회개혁의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1930년에 개최되었던 스톡홀름 세계박람회는 유럽의 이러한 기능주의 경향이 스웨덴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건축과 공공 건축물을 위한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는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기능주의 스타일이 탄생했다. 이 전시회가 개최된지 1년 후 스톡홀름 박람회의 성과를 정리하는 일종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단행본 『억셉티에라(Acceptera)』(1931)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박람회에 참가했던 건축가 구나르 아스프룬드와 박람회의 커미셔너였던 그레고르 파울손이 중심이 되어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는 박람회가 지향했던 이상과 정신이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어 있었다 -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현실을 주도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개최전 박람회의 성격 규정을 놓고 지루하게 계속되었던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4백만명의 관람객이 스

11) 그레고르 파울손(Gregor Paulsson, 1889-1977)은 미술사가로 스웨덴 국립 박물관(1916-24)에서 일했으며 스웨덴 수공예협회 회장(1920-34), 욕살라 대학의 미술사 전공의 교수직(1934-56)을 역임했다. 『보다 아름다운 일상용품들』의 스웨덴어 원래 제목은 *Vackrare Vardagsvara* 로 영문으로 번역될 때는 일반적으로 *More Beautiful Things for Everyday Life* 라고 한다.

특홀름 박람회를 관람하였다. 박람회의 책임건축가였던 구나르 아스프룬드는 전시장 건물들을 전시내용을 담는 기능적인 공간 이상의 것으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하여 박람회장이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세대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공간이 되도록 했다. 스톡홀름 박람회장은 전체 공간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이었다. 광고물, 스피커, 레스토랑, 새로운 운송수단, 효율적인 상가환경, 표준화된 일상용품 등 모든 것이 새롭고 편안하고 보다 합리적인 생활양식을 제시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후 스웨덴은 1937년 파리 세계 박람회와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스웨디쉬 모던 — 디자인에 있어서 건전성을 향한 운동(Swedish Modern — A Movement towards Sanity in Design)'<sup>12)</sup>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1930년대는 차갑고 합리적인 독일의 기능주의가 스웨덴에서 보다 우아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디자인 양식으로 발전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기능주의는 휴머니즘적인 특성과 함께 단순성, 합리성, 실용성,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인 이상이 조화된 양식이었다. 이후 스웨덴 디자인은 1970년대까지 민주주의의 이상을 반영하면서도 우아한 '굿 디자인(Good Design)'의 대명사로 평가되었고 외국의 디자인계에서도 전통, 인간적 가치, 실용성,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특히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스웨덴 인테리어 디자인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들은 스웨덴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곧 자신들이 지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4-2-2. 일상생활의 문화적 환경 연구(1940년대)

1939년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스웨덴 역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중립주의를 택하여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스웨덴의 산업체는 물자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정치적으로도 고립되었다. 이러한 사회 상황은 디자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스웨덴은 일상생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족생활, 주거습관, 가구의 선택, 주거공간의 활용, 동선 등에 대하여 사회적인 접근이 시작된 것도 40년대였다. 스타일 면에서는 패턴을 이용한 텍스타일, 친근한 느낌의 나무 가구들,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 등 이미 1930년대에 등장한 디자인 경향들이 194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일종의 일상 생활 문화의

찾대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거공간 부족이었다. 당시에 스웨덴은 개인당 주거면적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었다.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식구들이 함께 생활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수공예 협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스웨덴의 디자이너들은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생활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대중에 대한 계몽활동을 활발히 했고 새로 건설된 아파트에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가구를 갖추어 주거 모델을 제시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945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은 스웨덴 수공예협회의 전시회 역시 주택문제와 주거생활개선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40년대 주택문제 전문가들과 디자이너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순한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계층의 차별이 없는 합리적인 주거공간의 마련이었다. 장식의 양식이 많고 구시대의 귀족적 취향을 모방한 가구를 구입하는 대신 단순하고 합리적인 디자인의 현대적인 가구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계층간의 차별을 없게 함으로써 구성원들간에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었다. 대량생산된 이러한 가구들은 가격면에서도 훨씬 저렴하여 전쟁으로 인해 어려워진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40년대에는 특히 부업노동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가구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침대의 규격, 탁자의 크기, 의자의 높이와 등받이의 각도 등이 경제적이고 인간공학적 차원에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구와 일상용품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접근은 7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고 스웨덴 디자인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시기는 스웨덴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산업 디자이너가 출현한 시기이기도 했다.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으로서 산업디자인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디자인 활동들을 통해 엔지니어들과 미술공예가들이 산업디자이너로 탈바꿈하여 전형적인 스웨덴 디자인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예에 기반을 둔 산업디자인을 탄생시켰다.

#### 4-2-3. 디자인에 있어 민주주의적 이상의 실현(1950년대)

1950년대 스웨덴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12) Sparke, Penny: *Design Source Book*, Macdonald Orbis, 144-145, (1986)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게 되었고 디자인 분야 역시 급속히 성장하여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디자인으로 대변되는 모더니즘 산업미학은 곧 진보와 발전의 상징이 되었고 이 시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주의가 넘치는 시기였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재료에 대한 실험의 시기였다. 비닐, 플라스틱, 에나멜, 기포고무가 가죽과 천, 나무 등의 천연소재들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1957년에 출발한 스웨덴 산업디자이너협회(Svenska Industridesigner, 약칭 SID)는 산업디자인의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내에서 산업디자이너들의 역할을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디자이너들은 더욱 더 많은 일상용품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40년대에 전원적이고 다소 복고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던 조형언어는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형태는 단순하고 엄격하면서도 우아함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스웨덴 수공예협회가 헬싱보리에서 개최하였던 <H55> 박람회였다. 1930년 스톡홀름 세계박람회가 노동자 계층의 주택문제와 주거공간문제를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라면 <H55> 박람회는 기능주의 이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민주사회의 구체적인 생활환경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한 전시회였다. 이 박람회에서는 주택문제와 일상 생활 환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 등이 선보였다. 이 전시회는 40년대에 이루어진 스웨덴 수공예협회의 체계적인 연구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박람회를 통해 스웨덴 디자인 스타일은 정점에 도달하였다. <H55>에 참가한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은 단순하고 깔끔하며 우아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기능과 미학이 조화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가격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했다.

근대화 이후 스웨덴 디자인의 발전은 외국으로부터의 영향과 스웨덴 전통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이루어졌고, 50년대는 스웨덴 디자인이 외국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던 최초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밀라노 트리엔날레에서의 성공과 미국 순회 전시회의 성공으로 '스웨디쉬 모던'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시기의 스웨덴 디자이너들은 단순하면서도 민주적인 이상을 반영하는 실제적인 아름다움을 찾는데 주력했다.

#### 4-2-4. 소비사회에 대한 반성(1960년대)

1960년대 중반에 스웨덴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황금시기는 이제 지나갔다고 느꼈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느꼈다.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관심을 개인적인 것에서 보다 공동체적인 것으로, 강자위주의 사고에서 약자에게로 넓혔다. 작업환경의 개선과 함께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성과는 1970년대 들어 스웨덴 디자인이 전세계로부터 다시 주목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56년에 그레고르 파울손은 『사물의 형태와 효용(Tingens bruk och prägel)』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기능주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선언문의 형식으로 쓰여졌던 『보다 아름다운 일상용품들』(1919)이나 『억셉티에라』(1931)와는 다른 성격의 책이었다.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를 분석한 이 책에서 파울손은 사물이 실용적이고 조형적인 기능 이외에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이 사람들의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사물을 통해 정체성이나 지위 혹은 욕구 등이 표현된다는 것이었다. 소비는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기도하다는 것이었다.

60년대 초반은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기 전으로 경제성장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던 시기였고 경제가 급성장한 시기였다. 10년 동안 100만가구가 건설되었고 마침내 주거공간 문제가 해소되었다. 주택의 경우 부엌의 크기가 커졌고 다양한 주방용품들로 채워졌으며 거실은 새로운 가구들로 장식되었다. 가구생산이 늘었고 공예적인 소규모 생산은 줄어들었다. 목수들은 점차 엔지니어로 변모해갔다. 단순화된 생산방법은 가격경쟁을 가져왔고 합리적인 생산양식은 합리적인 유통과 판매로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재료로 각광받았던 플라스틱에 대한 열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68운동이후 고조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플라스틱은 건전하지 못한 소비사회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고 70년대의 석유파동 후에는 가격이 비싸져 더 이상 가구 재료로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일부 디자이너들이 판지와 플라스틱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실험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품질을 유지한 제품들과 공예품들을 제작하였다. 60년대는 즐거움과 실험정신, 그리고 역동성이 있는 시기로 출발하였지만 이 시기는 곧 사라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걱정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 4-2-5.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1970년대)

68년 운동 이후 서유럽의 전체적인 변화는 스웨덴 디자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디자인 교육이나 디자인 작업의 목표와 의미뿐 아니라 전체 소비사회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디자인 교육기관인

스웨덴 국립디자인대학(Konstfack)의 학생들은 베트남 전쟁, 세계적인 계층 격차 문제, 과소비, 환경파괴,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제와 대도시 문제에 둘러싸인 세상에서 디자이너들의 작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데 소비를 위한 물건을 디자인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1968년 여름 학생들은 당대 가장 유명했던 디자인 이론가인 빅터 파파넥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 파파넥은 단순하고 검약적인 재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디자인 개발을 하도록 하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디자인의 범주를 넘어서 생태학적인 접근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학생들은 저개발 국가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주제로 팀을 구성하였고 수업을 통해 주로 연장, 가구, 작업복, 장애인을 위한 도구 등을 디자인하였다. 이때의 시도들은 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디자인 연구로 발전되었고 학생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70, 80년대에 들어 실용화되었다.

1979년 에르고노미 디자인그룹을 창립했던 젊은 디자이너 마리아 벤크존과 스벤 에릭 올린은 인간공학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70년대에 장애인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일상생활의 도구와 연장들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이들 제품들은 모두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기능적으로나 조형적으로 우수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한 마리아 벤크존과 스벤 에릭 올린의 디자인 방법론과 디자인 연구방법은 후에 스웨덴의 산업 디자인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까지의 산업디자이너들이 제품의 외형을 디자인하는 스타일리스트였던 반면 1970년대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중시하고 엔지니어, 마케팅 전문가 등 인접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디자인 작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갔다. 경제침체는 사회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고 산업체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디자이너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보다 전문적인 디자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증대되었고 대학에서는 산업디자이너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는 전문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공공기관들이 디자인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중소기업의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발전 후원회가 조직되었다.

70년대의 스웨덴 사람들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주거 생활에 있어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모델을 찾고자 했다. 제품들과 생활양식, 소비주의와 복지정책의 관계들을 조명했던 1978년 <바라와 운드바라(Vara & Undvara)<sup>13)</sup> 전시회는 디자인 평론가들 사이에 품질, 단순성, 재활용 등의 문제에 대한 격렬한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70년대 이전까지 산업적인 대량생산 방식을 선호하고 수공예적인 작업을 사치라고 여기던 디자이너들은 산업적인 대량생산 방식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그들이 그동안 해온 것이 결국은 자원을 낭비하고 과소비를 조장해온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70년대의 디자이너들은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한 환경친화 제품의 개발을 그들의 이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한편 70년대는 공공건물과 시설의 인테리어가 부각된 시기였다. 대학, 학교, 관청, 병원, 각종 후생시설 등 공공부문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디자이너들은 적극적으로 공공 환경개선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는 새로운 경향이 시작되었다. 몇년간 계속되었던 기능주의적인 가치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본격화되었다. 사회공학적인 시도들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었고 환경문제를 염두에 둔 모노톤의 단조로운 형태의 범람은 아름다움과 감성 그리고 자기정체성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보다 자유롭고 표현적인 시도들에 대한 요구를 불러 일으켰다.

#### 4-3. 스웨덴 현대 디자인의 과제(1980년대 이후)

스웨덴 디자인의 발전과정에서 1980년대는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창의력이 다시 부각된 시기였다. 젊은 세대의 디자이너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실용적인 기능에 못지 않은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여겨졌다. 80년대 들어 스웨덴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디자인이라는 말은 새롭게 정의되었다. 산업 디자이너들은 인간공학 등을 이용하여 작업환경들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을 돕는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였고 이와 함께 디자이너들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다. 60년대와 70년대 초에 화석화된 이미지로 쇠퇴했던 미술공예 역시 다시 활기를 되

13) <바라와 운드바라(Vara & Undvara)> 라는 전시회 제목은 어휘상 직역이 곤란하다. 하지만 당시 사용된 전시회 포스터에 실린 글을 통해 이 전시회가 지향했던 바를 설명하자면 재활용, 절제되고 겸손한 생활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통해 소비를 줄이고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찾았고 기존의 양식에 대한 재평가와 과감한 시도들이 이어졌다.

80년대의 상황들은 이전 시대와는 확실히 달랐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스웨덴'적이지 않은 것으로도 비추어졌다. 80년대의 스웨덴 디자인은 형태적인 실험과 상상력의 실험을 통해 이전 시대와 단절된 듯 보이지만 이 또한 스웨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발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 디자인계는 <노드포름 90>(1990), 스웨덴 국립디자인대학의 150주년 기념 행사(1994), 스웨덴 디자인협회의 150주년 기념 전시회 및 국제 심포지움 개최(1995) 등을 통해 스웨덴 디자인 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80년대에 시도되었던 자유로운 표현방식들과 개발위주의 디자인 사고보다는 자연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디자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들은 70년대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계승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동안의 기술적 진보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0년대의 자유분방한 조형적 실험들을 통해 스웨덴 디자이너들은 오히려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게 되었다.

## 5. 결론

스웨덴 사회에서 디자인은 구체적인 일상의 삶 그 자체이자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디자인 분야는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갖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스웨덴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으며 독자적인 조형언어를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다.

스웨덴 디자인은 주변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 속에 발전하였고 스웨덴의 디자이너들은 스웨덴 문화의 정체성을 다른 문화와의 조화를 통해 확보하려 했다. '정체성이란 상대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는 수립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스웨덴 사회는 외래문화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며 이를 바람직한 방향에서 활용했다. 즉 스웨덴 디자인의 정체성은 선진 강대국 문화를 모방함으로써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와 존재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획득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소위 스웨덴적인 것이라 부르

고 있는 디자인의 특성들은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개발되어진 스타일이 아니라 그들 고유의 민족적 특성을 바탕으로한 그들만의 고유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의 표현인 것이다. 스웨덴 디자인의 발전과정은 우리에게 디자인의 발전은 자연적 불편함을 극복하려는 노력, 풍부한 자연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장인정신, 그리고 성숙된 사회여건, 정치, 경제적인 조건들이 잘 결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웨덴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추구했던 국가적인 정체성 확보와 이를 통한 문화역량의 증대, 또 사회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디자인정신 등은 디자인을 단지 단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단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를 통한 경제수준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바람직한 형태의 근대적 국가체제 확립과 문화적 정체성 확보라는 측면에는 소홀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웨덴의 근대화 과정을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들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거나 스웨덴의 사회개혁정책과 디자인의 발전을 연관시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스웨덴 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미적 전통들이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스웨덴의 디자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스웨덴 모델이 확립되는 시기는 곧 스웨덴이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 독자성을 인정받고 국가적인 정체성을 확보해 나간 시기였으며 과거 유럽의 변두리로서 항상 문화의 수입자이자 추종자로서의 역할을 벗고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위치로 상승한 시기였다. 스웨덴 국민들은 이 시기에 단순히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평등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해 문화적이고도 미적인 취향이 고양되었다. 다시 말해 소득재분배와 사회민주화를 통해 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주화에도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0년대 이후 스웨덴이 급변하는 세계 정치,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스웨덴 모델을 다소 수정, 보완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웨덴 모델이 제시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상과 지향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우리 사회에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현주: 스웨덴 디자인의 발전과 현재, 디자인학 연구, Vol. 11, (1995)
- 강현주: 스웨덴 모던 디자인의 발전과정과 스웨덴 디자인협회, 디자인 연구, Vol. 7, (1997)
- 김정홍 외: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1994)
- 勝見 勝 외: 박대순 역,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1983)
- 변광수: 북유럽사, 대한교과서주식사, (1991)
- 서규환 외: 옷을 갈아 입는 아파트- 문화환경의 디자인과 비평, 열린세상, (1995)
- 이병천 외: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 스웨덴의 경우, 백산서당, (1993)
-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1991)
- 주성수: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인간사랑, (1992)
- Boman, Monica ed.: *Design in Sweden*, Stockholm, The Swedish Institute, (1985)
- Dahlin, Torsten ed.: *The Human Dimension*, Svensk Industridesign, (1994)
- Dormer, Peter: 강현주, 조미아 역, 1945년 이후의 디자인, 시각과 언어, (1995)
- Greenhalgh, Paul ed.: *Modernism in Design*, Reaktion Books, (1990)
- Gustafsson, Mats: *Essays*, Almlöf Edition, (1992)
- Ilvemo, Barbro, and Baggøe, Thomas: *From Ellen Key to Ikea*, The Röhska Museum of Art and Crafts, (1991)
- McFadden, David Revere ed.: *Scandinavian Modern Design 1880-1980*, Cooper-Hewitt Museum, (1982)
- Paulsson, Gregor: *Vackrare Vardagsvara*, Svenska Slöjdföreningen, (1919)
- Robach, Cilla: Svensk Forms designutmärkelse Utmärkt Svensk Form 1983-1994, Uppsala Universitet, (1995)
- Sparke, Penny: 편집부 역, 미진사, (1990)
- Sparke, Penny: 이순혁 역, 20세기의 디자인과 문화, 까치, (1995)
- Todd, Emmanuel: 김경근 역, 유럽의 발견-인류학적 유럽사, 까치, (1997)
- Wickman, Kerstin ed.: *Form genom tiden- Människans Rum och Ting*, Sveriges Television AB, (1992)
- Wickman, Kerstin ed.: *Formens Rörelse - Svensk Form genom 150 år*, Carlssons, (1995)